

12/12(월) 시편(4 권) 묵상 11

시편 99:1-9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9편의 중심 주제는 만민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말씀을 주시며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합니다(3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 시에서 사용된 ‘거룩하심’은 히브리어 ‘코데스’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카도스’로서 ‘거룩한, 신성한’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거룩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출 15:11,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비해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레 11:45,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벰전 1:15,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은 떨고 두려워합니다(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들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3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주님을 마치 친구처럼 소통하고 교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6절,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을 담당했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세우는 일에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출 19: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매년 대속죄일마다 성막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주변에 피를 뿌림으로써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했습니다(출 40:13,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삼상 7:16, “해마다 벰엘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삼상 7:8,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즉 이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국가의 지도자(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들로서 왕직과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시인은 마지막 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요청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찾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7-9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며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소통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세와 아론, 사무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고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의 삶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말과 행함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한국을 위한 기도:** 한국의 위정자들과 정치, 경제, 외교, 특히 북한 문제를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한국의 교회들과 신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 3.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은 햄튼 3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레바논 이바나바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